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2일 화요일 음 9월 24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오후부터 동부와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5~17℃, 낮 최고 기온은 22~23℃로 예상된다. 북동부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10%	제 주	20%
20%	성 산	60%
10%	고 산	20%
10%	서귀포	20%

	해뜸 06:44 / 해짐 17:53	달짐 14:11
물때	만조 04:23 / 18:18	간조 11:03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8/22℃
모레	구름 많고 비	18/2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 2000마리 양떼 '장관'

중세 풍습 '양떼 이동 축제'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를 가득 메운 양떼.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는 자동차 소음 대신 때 양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때 아닌 양 울음소리는 약 500년 전 양치기들이 겨울을 맞아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가축을 이동시키던 풍습을 기념하는 행사로 인한 것이었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드리드에서 매해 진행되는 '양 떼 이동 축제'(Fiesta de la Trashumancia)의 일환으로 이날 약 2000마리의 양 무리가 중심가를 가득 채우며 이동했다.

양들 대부분이 목에 종을 차고 있어 거리는 종소리로도 시끄러웠다. 이들을 이끄는 양치기들은 곁에서 망토 등 전통 복장 차림으로 행진했다.

스페인 농업부와 마드리드 관광당국은 양치기들에게 가축을 끌고 도시를 가로지를 권한을 부여한 중세시대 규정에 착안해 1994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했다.

기록에 의하면 1418년 양치기들은 양들을 지나가게 해주는 대가로 시의회에 가축 1000마리당 50코인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해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그대로 유지돼 오늘날에도 축제일에 양치기 측 대표가 마드리드 시장에게 소량의 요금을 지불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마드리드 카사데캄포 공원에 모인 양들은 시청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2시까지 시내를 빠져나왔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와리지' 말자

강 상 주
전 서귀포시장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왜 이리 극단적인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사생결단하듯, 혹은 우리 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식의 극단적 양분론적 태도로 상대를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양분화 태도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회생활에도 오염된 듯하다. 야심가들은 이러한 계기를 기화로 판을 흔들어야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나 뿐 아닌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는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도 각종 조합, 금고, 신협 등의 생활밀접형 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을 이끄는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출에 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요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운동 과정을 보니 보통은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하는 데 반해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인지 어떤 후보들은 유권자 100%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군 51% 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봤다.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선거판의 고수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선거운동에 몇십 년을 종사해 터득한 노하우이리라 생각된다. 그들의 선거 전략의 핵심은 우군과 적군으로 구분하여 가능성 있는 우군만 챙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연상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양극화시켜 자기들 지지파만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반응이 대법원 판결 관점에 부정적 국민이면 친일파고 긍정적으로 따르면 애국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이분화 시키고 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자기의 견해를 여러 번 밝히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영혼이 자유로운 교수 출신이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여겼다. 나도 대법원 판결 그 자체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입장이 있고 외교적 문제와 결부되기에 그런 점에 대한 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민들을 친일파와 애국파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청문회 등 여러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고 평범한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 했다. 국민들은 표창장이든 증명서든 반칙으로 발급받아서 입학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과 불공정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분노하는데, 본인이나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없고 간신나라 충신처럼 제대로 된 국민여론은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뭐가 그리 급한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그동안 보여준 국민적 열기를 에너지로 하여 우리사회에 기생하고 있던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와리지'(조급해서 서둘다)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국가다. 우리는 왜 이렇게 '와리는지' 모르겠다.

열린마당

공공임대주택 수요자 편의성 위한 정책 제언

문 창 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자 중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국민, 행복 등 복잡 다양한 유형으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조건이 상이하며 공급자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돼 수요자의 특성 반영이 미미하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수요자의 소득수준, 가구특성에 따라 임대료, 입주기준 유형의 중장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동일한 소득수준의 입주대상계층일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 따라 영구임대는 시세의 30~50%, 국민임대는 70~80%를 지불하게 돼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입주자가 자신의 소득, 가구 특성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대료도 임대주택 유형이 아닌 부담능력에 맞도록 납부하는 차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인상률이 실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설비 상승률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 재정지원 기준은 3.3㎡당 2014년 659만원, 2016년 699만원, 2018년 742만원, 2019년 764만원이다. 실제 건설단가에 못미치는 재정지원 단가는 매년 3% 인상에 그치고 있다.

과거에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에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아도 싼 임대료의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택에 대한 품질 향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무주택 서민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화도시 서귀포,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때

임 태 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는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지역의 격과 품위를 높이고 매력을 증대시킨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뜻한다. 만약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제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이미지뿐만 아니라 노지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농부학교 ▷가치고치 음악쉼팡 아카데미 ▷일상이문화사업과 마을문화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 아카이빙 ▷마을문화기초실태조사 사업 등의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서귀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주도의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라운드테이블 ▷마을문화살롱 ▷폭낭알 문화반상회 등 시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행사소식을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서귀포 문화시민클럽'도 운영중이다.

최근 서귀포 예비문화도시 '노지문화'기획전시도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 한달간 서귀포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귀포 노지문화 및 생활사와 관련된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서귀포가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활발한 문화 활동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서귀포 시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제주도정 소식

2019 제주청년의 날 행사 / 10월 26일(토),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
제주청년들의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표현하고 정의하는 날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64-710-8861~8863)

가치를 품다, 사람이 좋다" 『2019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일 시 : 2019.10.26.(토) 오후1시~6시
○ 장 소 :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일대
사회적경제기업 먹거리 시음·시식, 만들기 체험, 통합 전시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724-0165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대상자 :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 지원대상
① 질병진단비 ② 예방접종비 ③ 중성화수술비 ④ 치료비 ⑤ 미용비
○ 지원비용 : 진료비의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치료비 등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 진료비용 50%지원
※ 중성화 수술의 경우 자부담도 지원(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진료내역서 또는 청구서 (병원직인 또는 병원장 날인 및 금액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결제승인영수증)
③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신청서
④ 동물 입양자(입양비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진료내역서상 보호자, 지원신청서 작성자, 통장 명의자가 모두 동일해야 함
○ 제출방법
① 직접 방문 ② 팩스(064-710-4069) ③ 이메일(windjo7@korea.kr)
○ 문의전화 : 064-710-4066

《유기동물 입양안내》
○ 입양시간 : 평일(월·화·목·금요일) 오후 2시~3시, 토요일 오전 11시~12시
○ 입양준비물 : 【개】 신분증 및 목줄 또는 이동장 , 【고양이】 신분증 및 이동장
○ 입양방법 : 입양희망자 본인(가족)이 입양시간에 동물보호센터 방문
※ 입양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등 동물들과 일정 시간을 보내고 입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추천

제주시정 소식

10월 명사초청 시민행복 인문학 강좌 운영
○ 일시: 2019. 10. 25.(금) 오후 7시~
○ 장소: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
○ 주제 및 강사 : 창의적인 관점과 새로운 미래 :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김태원 구글코리아 상무)
○ 대 상 : 제주시민 200명(선착순 무료입장)
○ 주관 및 주최 : 제주시 자치행정과
○ 문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728-8681~8683

'함께해요, 자원순환' 제5회 제주시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 일시 : 2019. 10. 26.(토) 10:30 ~ 16:00
○ 장소 :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광장
○ 참여 : 공공기관, 환경단체, 자생단체, 도민, 학생, 관광객 등
○ 프로그램
- 무대이벤트: 버스킹, 새활용 환골탈태 강연, 함께하는 릴레이 게임 등
- 재사용 물품 판매: 알뜰장터, 플리마켓운영, 어린이·청소년벼룩시장운영
- 리폼가구 판매코너: 버려지는 가구를 리폼하여 시민 보급
- 환경체험프로그램: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색 환경체험 등
- 그 외: 자전거 무상수리, 폐건전지·우유팩 교환행사, 쓰레기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등
○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 ☎728-3182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내
○ 훈련기간 : 2019. 10. 28.(월) ~ 11. 1.(금)
○ 훈련목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역할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훈련기간 : 2019. 10. 28.(월) ~ 11. 1.(금)
※토론훈련(10.29.(화) 10:00/제1별관회의실), 현장훈련(10.31.(목) 14:00/구좌체육관)
○ 재난유형 : 복합재난(지진 발생에 따른 붕괴 및 화재)
○ 훈련참여 : 제주시,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명
※ "제413차 민방위 날" 훈련 연계 전국지진대피훈련 실시(3일차)
○ 문의 : 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012

서귀포시정 소식

중앙도서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글쓰기' 참가자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19. 10. 8(화) ~ 마감 시까지(선착순 접수)
○ 모집대상 : 일반 성인 30명 내외
○ 운영일시 : 2019. 10. 30(수) ~ 11. 20(수) / 매주 수요일 19:00~21:00
○ 운영장소 : 서귀포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운영강사 : 현택훈 시인 (시옷서점 대표)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 760-3732)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제66회 정기연주회 알림
○ 공연일시 : 2019. 10. 24(목) 19:30
○ 공연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지휘 : 도립서귀포관악단 상임지휘자 이동호
○ 협연 : 플루트 오신정, 피아노 강스텔라, 바이올린 강선혜, 첼로 문숙연
○ 연주곡 : 교향시 '삼성혈', 헝가리 전원 환상곡 작품 26,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위한 3중 협주 다장조 작품 56 등
○ 입장료 : 전석 무료 (만6세부터 입장 가능)
○ 공연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760-2494)

주간농업농촌소식

노지감귤 품질 향상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 수확 할 때까지 비상품과 열매솎기
○ 수확시까지 너무 작거나 큰 열매, 병해충 피해 열매 등

□ 감귤 이미지 향상 '부패과' 줄이기
○ 총채벌레, 노린재, 초록애매미충 등 흡즙 해충 방제
○ 수확 전 부패방지 작물보호제 살포
- 스포르곤·해비치(수확 7일전), 베푸란·벨쿠트 (수확 14일전) 등
※ 반듯이 살포 횟수 및 한계기 확인 후 사용.
○ 수확할 때 충격 줄이고 상처나지 않도록 할 것
○ 비가 왔을 경우 3~5일 맑은 날 지속 후 수확함.

□ 타이벡 피복 감귤원 관리요령
○ 빗물 유입 감귤원은 피복 자재를 걷고 토양 건조 후 다시 피복
○ 10일 간격 품질(당도, 산함량) 조사 후 품질 수준에 맞는 물관리

□ 수확은 완숙과 위주 구분 수확
○ 수확 후 3~5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예비 건조 후 출하
- 예비 건조를 하면 부패율 5.5% 줄이고 감량이 5.1% 덜 됨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1)